

내년 국방예산 52조 8401억 원 확정

2조6874억 원 증액 국회 본회의 의결
장병 마스크 등 코로나 예산 새로 반영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추가 편성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50조 1527억 원보다 2조 6874억 원(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으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가운데 2871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군 위성통신 체계-II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돼 2097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군 내 코로나19 차단에 대한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확정된



내년 국방예산에는 군 내 코로나19 차단에 대한 마스크 지급 예산으로 487억 6500만 원이 책정됐다. 사진은 지난 3월 해군보급창 병참지원대에서 장병과 군무원들이 면마스크를 제작하는 모습. 조종원 기자

예산에는 장병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한 정부 예산안 326억 2900만 원보다 161억 3600만 원이 오른 487억 6500만 원이 책정됐다. 또 병사들의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134억 4700만 원)보

다 18억여 원 오른 153억 1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예산도 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투복 소재 국산화를 위해 71억 8900만 원이 새

로 포함됐다. 올해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부대의 GP, 탄약고 신축을 위한 예산 9억 4500만 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설사업 공사비다. 국회는 시설사업 공사비 가운데 123억 2000만 원을 감액했다.

방위력개선비에서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연구개발(R&D)과 군 위성통신체계-II 사업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에서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R&D에 61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위성통신체계-II(469억 2700만 원), 연합군사정보체계 R&D(211억 4200만 원)도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해군 신형 고속정을 도입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II 사업은 추진 여건이 바뀌면서 1096억 3300만 원이 감액됐다. 맹수열 기자

참전·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올해보다 1554억 원 ↑

수당·유족 급여금 등 보훈 예산 의결
보훈병원 증축·국립묘지 확충 등 계획

2021년 국가보훈 예산이 5조 835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5조 6796억 원보다 2.7%(1554억 원) 오른 금액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

당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국립묘지 확충 등의 예산을 증액한 국가보훈 예산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에는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각각 2만 원 인상돼 정부안 6828억 원보다 420억 원 오른 7248억 원이 반영됐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

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월 1만 원이 늘어나 정부안(813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한 835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늘어난 내년 예산을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 사업 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올해보다 늘리는 한편,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등 의료·복지시설 환경도 개선하고, 제주·연천 국립묘지 신규 조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돕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2021학년도 봄학기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 모집

군 간부·군무원·군인가족 입학금 면제,
호국장학금과 국가장학금으로 무료 학습 가능

- 모집 학과
군경상담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호학과
- 모집 일정
 - 인터넷 원서 접수: 2020.12.1(화) ~ 2021.1.12(화) • 합격자 발표: 2021.1.18(월) (학번 발급)
 - 서류 제출: 2020.12.1(화) ~ 2021.1.12(화) • 입학금 납부: 2021.1.18(월) ~ 1.21(목)
- 2차 모집
 - 인터넷 원서 접수: 2021.1.25(월) ~ 2021.2.16(화) • 합격자 발표: 2021.2.22(월) (학번 발급)
 - 서류 제출: 2021.1.25(월) ~ 2.16(화) • 입학금 납부: 2021.2.22(월) ~ 2.24(수)
- 제출 서류
 - 신입학(1학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편입학(2,3학년): 전적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또는 학점인정확인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군간부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장학혜택
- 특 전
 - 군 간부·군무원 입학금 면제, 호국장학금과 국가장학금으로 무료 학습 가능 • 군인전담 교수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군 학생 특별 학사제도 완비(훈련 및 비상근무시) • 군 교육지원센터 운영
 - 군 간부들의 군상당 학습은 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에서!!!
 - 안전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공학과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전기전자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보안/사이버사 중점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해킹보안, 사이버수사, 산업보안, 보안코딩 전문과과정 운영)
- 입학 문의전화
입학처 : T. 02-2204-8000
 - 군경상담학과 학과장 : T. 02-2204-8608 (김효순 교수) : M. 010-7471-5859 / T. 02-2204-8084
 - 산업안전공학과 학과장 : T. 02-2204-8637 (이수경 교수) : M. 010-6270-1707 / T. 02-2204-8674
 - 전기전자공학과 학과장 : T. 02-2204-8635 (박동철 교수) : M. 010-9005-5384 / T. 02-2204-8627
 - 정보보호학과 학과장 : T. 02-2204-8023 (유혜정 교수) : M. 010-9750-2209 / T. 02-2204-8075

세종사이버대학교